

전국 첫 개소 하남산단 근로자조식센터 가보니

아침밥 반값에... '끓모닝' 바이~

샌드위치·샐러드 등 간편식
100여개 1시간만에 동나
광주시 비용 50% 지원
10개 이상 주문편 배달 예정
접근성 향상 해결 과제 남아



근로자들이 27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에 있는 '조식지원센터'에서 샌드위치와 샐러드를 사기 위해 줄을 서있다.

“평소 아침을 거르는데, 덕분에 오랜만에 아침을 먹게 되네요”
27일 문을 연 ‘근로자 조식센터’를 방문한 김창우(39)씨의 말이다. 김씨는 동료 직원의 뒤편까지 구매하려 했지만, 준비한 샌드위치가 동나 1개밖에 구매하지 못했다.

광주 하남산단 내 중소기업에 14년째 근무 중인 김 씨는 “회사 근처에 이런 센터가 생겨 앞으로 종종 이용할 것 같다”며 웃었다.

광주시 등은 27일 오전 7시 30분 광주시 광산구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에서 ‘근로자 조식지원센터(간편한 아침 한끼)’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센터 측은 샌드위치 50개와 샐러드 50개를 준비했지만, 사람들이 몰려 직원들이 예비 재료로 급하게 추가 샌드위치를 만들기도 했다. 준비한 음식은 1시간여만에 모두 판매됐다. 늦게 온 사람들은 허탕을 치기도 했다.

개소식에 참가한 한 기업 직원은 “일찍 출근하는데다 혼자 살고 있어 끼니를 거르는 때가 많다”며 “간편하게 아침식사를 할 수 있게 돼, 센터를 자주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센터 운영을 맡은 박선 광주광산지역사회복지팀장은 “전날 음식을 10개 이상 주문하면 직원이 직접 배달도 할 예정이다”며 “아직 초기 단계라 미숙하지만, 앞으로 운영을 해가며 세부적인 내용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센터의 접근성과 음식 가격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이 하남산단 4번 도로에 있다보니, 4번 도로와 떨어진 7·8·9번 도로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센터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샌드위치 가격도 편의점과 비슷해 굳이 센터까지 찾아와 음식을 구매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기아자동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등 대기업에선 밥과 국, 반찬까지 제공하는데 가격은 500원이고, 대학교도 1000원 조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취직은 좋지만 아쉬운 점도 있는만큼 지원을 더 늘려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부담없이 아침식사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용만 광주시 노동정책관은 “한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아침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메뉴를 고민하다보니 샌드위치를 선택했다”며 “시범운영을 거쳐 반응이 더 좋으면 예산을 확보해 메뉴와 장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센터 측은 샌드위치 50개와 샐러드 50개를 준비했지만, 사람들이 몰려 직원들이 예비 재료로 급하게 추가 샌드위치를 만들기도 했다. 준비한 음식은 1시간여만에 모두 판매됐다. 늦게 온 사람들은 허탕을 치기도 했다.

개소식에 참가한 한 기업 직원은 “일찍 출근하는데다 혼자 살고 있어 끼니를 거르는 때가 많다”며 “간편하게 아침식사를 할 수 있게 돼, 센터를 자주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센터 운영을 맡은 박선 광주광산지역사회복지팀장은 “전날 음식을 10개 이상 주문하면 직원이 직접 배달도 할 예정이다”며 “아직 초기 단계라 미숙하지만, 앞으로 운영을 해가며 세부적인 내용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센터의 접근성과 음식 가격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이 하남산단 4번 도로에 있다보니, 4번 도로와 떨어진 7·8·9번 도로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센터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샌드위치 가격도 편의점과 비슷해 굳이 센터까지 찾아와 음식을 구매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기아자동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등 대기업에선 밥과 국, 반찬까지 제공하는데 가격은 500원이고, 대학교도 1000원 조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취직은 좋지만 아쉬운 점도 있는만큼 지원을 더 늘려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부담없이 아침식사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용만 광주시 노동정책관은 “한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아침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메뉴를 고민하다보니 샌드위치를 선택했다”며 “시범운영을 거쳐 반응이 더 좋으면 예산을 확보해 메뉴와 장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센터 측은 샌드위치 50개와 샐러드 50개를 준비했지만, 사람들이 몰려 직원들이 예비 재료로 급하게 추가 샌드위치를 만들기도 했다. 준비한 음식은 1시간여만에 모두 판매됐다. 늦게 온 사람들은 허탕을 치기도 했다.

개소식에 참가한 한 기업 직원은 “일찍 출근하는데다 혼자 살고 있어 끼니를 거르는 때가 많다”며 “간편하게 아침식사를 할 수 있게 돼, 센터를 자주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센터 운영을 맡은 박선 광주광산지역사회복지팀장은 “전날 음식을 10개 이상 주문하면 직원이 직접 배달도 할 예정이다”며 “아직 초기 단계라 미숙하지만, 앞으로 운영을 해가며 세부적인 내용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센터의 접근성과 음식 가격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이 하남산단 4번 도로에 있다보니, 4번 도로와 떨어진 7·8·9번 도로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센터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샌드위치 가격도 편의점과 비슷해 굳이 센터까지 찾아와 음식을 구매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기아자동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등 대기업에선 밥과 국, 반찬까지 제공하는데 가격은 500원이고, 대학교도 1000원 조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취직은 좋지만 아쉬운 점도 있는만큼 지원을 더 늘려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부담없이 아침식사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용만 광주시 노동정책관은 “한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아침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메뉴를 고민하다보니 샌드위치를 선택했다”며 “시범운영을 거쳐 반응이 더 좋으면 예산을 확보해 메뉴와 장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센터 측은 샌드위치 50개와 샐러드 50개를 준비했지만, 사람들이 몰려 직원들이 예비 재료로 급하게 추가 샌드위치를 만들기도 했다. 준비한 음식은 1시간여만에 모두 판매됐다. 늦게 온 사람들은 허탕을 치기도 했다.

개소식에 참가한 한 기업 직원은 “일찍 출근하는데다 혼자 살고 있어 끼니를 거르는 때가 많다”며 “간편하게 아침식사를 할 수 있게 돼, 센터를 자주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센터 운영을 맡은 박선 광주광산지역사회복지팀장은 “전날 음식을 10개 이상 주문하면 직원이 직접 배달도 할 예정이다”며 “아직 초기 단계라 미숙하지만, 앞으로 운영을 해가며 세부적인 내용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센터의 접근성과 음식 가격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광주·전남 세월호 9주기 추모행사 다채

오늘 독립영화관 '장기자랑' 상영
내달 14~16일 민주광장에 분향소

세월호 참사 9주기(4월 16일)를 맞아 광주·전남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린다.

올해 세월호 추모 슬로건은 ‘안전사회를 향해 손맞잡고’, ‘끝까지 함께 반드시 진실’로 보다 안전한 사회를 향한 염원을 담았다.

세월호 광주시민상주모임(시민상주모임)은 28일 오후 7시 광주시 동구 서석동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영화 ‘장기자랑’을 상영한다. ‘장기자랑’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유가족 어머니들로 구성된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의 동명 연극 ‘장기자랑’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상영 후에는 영화 연출을 맡은 이소현 감독과 상주모임 활동가 추말숙 배우가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4월 14일부터 참사 당일인 16일까지는 추모 분

위기를 이기기 위해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 시민분향소가 설치된다. 민주광장 분향소 일대에서는 버스킹 등을 열어 추모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광주에서는 시민상주모임의 주관으로 14일과 16일까지 청소년촛불모임을 열어 시민들과 세월호 참사 분위기를 나눈다.

14일에는 오후 4시 16분 광주시 북구청 앞 광장에서 일곡, 용봉, 양산, 문흥동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촛불마을 행사가 열린다.

15일에는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하는 ‘청소년 기억문화제’가 열린다. 광주지역 청소년들은 이날 안전한 사회를 꿈꾸며 각종 공연과 전시 등을 선보인다.

15일부터 16일에는 광주에서 출발해 경기도 안산까지 가는 ‘다함께 안산까지’ 행사도 개최된다. 참가자들은 15일 광주에서 출발해 안산에서 전야제에 참석한 뒤 16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4·16생명안전공원과 단원고의 ‘기억교실’을 방문하고 광주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광주에서는 시민상주모임의 주관으로 14일과 16일까지 청소년촛불모임을 열어 시민들과 세월호 참사 분위기를 나눈다.

14일에는 오후 4시 16분 광주시 북구청 앞 광장에서 일곡, 용봉, 양산, 문흥동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촛불마을 행사가 열린다.

15일에는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하는 ‘청소년 기억문화제’가 열린다. 광주지역 청소년들은 이날 안전한 사회를 꿈꾸며 각종 공연과 전시 등을 선보인다.

15일부터 16일에는 광주에서 출발해 경기도 안산까지 가는 ‘다함께 안산까지’ 행사도 개최된다. 참가자들은 15일 광주에서 출발해 안산에서 전야제에 참석한 뒤 16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4·16생명안전공원과 단원고의 ‘기억교실’을 방문하고 광주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광주에서는 시민상주모임의 주관으로 14일과 16일까지 청소년촛불모임을 열어 시민들과 세월호 참사 분위기를 나눈다.

14일에는 오후 4시 16분 광주시 북구청 앞 광장에서 일곡, 용봉, 양산, 문흥동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촛불마을 행사가 열린다.

15일에는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하는 ‘청소년 기억문화제’가 열린다. 광주지역 청소년들은 이날 안전한 사회를 꿈꾸며 각종 공연과 전시 등을 선보인다.

15일부터 16일에는 광주에서 출발해 경기도 안산까지 가는 ‘다함께 안산까지’ 행사도 개최된다. 참가자들은 15일 광주에서 출발해 안산에서 전야제에 참석한 뒤 16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4·16생명안전공원과 단원고의 ‘기억교실’을 방문하고 광주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광주에서는 시민상주모임의 주관으로 14일과 16일까지 청소년촛불모임을 열어 시민들과 세월호 참사 분위기를 나눈다.

14일에는 오후 4시 16분 광주시 북구청 앞 광장에서 일곡, 용봉, 양산, 문흥동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촛불마을 행사가 열린다.

15일에는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하는 ‘청소년 기억문화제’가 열린다. 광주지역 청소년들은 이날 안전한 사회를 꿈꾸며 각종 공연과 전시 등을 선보인다.

15일부터 16일에는 광주에서 출발해 경기도 안산까지 가는 ‘다함께 안산까지’ 행사도 개최된다. 참가자들은 15일 광주에서 출발해 안산에서 전야제에 참석한 뒤 16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4·16생명안전공원과 단원고의 ‘기억교실’을 방문하고 광주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광주에서는 시민상주모임의 주관으로 14일과 16일까지 청소년촛불모임을 열어 시민들과 세월호 참사 분위기를 나눈다.

14일에는 오후 4시 16분 광주시 북구청 앞 광장에서 일곡, 용봉, 양산, 문흥동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촛불마을 행사가 열린다.

15일에는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하는 ‘청소년 기억문화제’가 열린다. 광주지역 청소년들은 이날 안전한 사회를 꿈꾸며 각종 공연과 전시 등을 선보인다.

15일부터 16일에는 광주에서 출발해 경기도 안산까지 가는 ‘다함께 안산까지’ 행사도 개최된다. 참가자들은 15일 광주에서 출발해 안산에서 전야제에 참석한 뒤 16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4·16생명안전공원과 단원고의 ‘기억교실’을 방문하고 광주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광주에서는 시민상주모임의 주관으로 14일과 16일까지 청소년촛불모임을 열어 시민들과 세월호 참사 분위기를 나눈다.

14일에는 오후 4시 16분 광주시 북구청 앞 광장에서 일곡, 용봉, 양산, 문흥동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촛불마을 행사가 열린다.

15일에는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하는 ‘청소년 기억문화제’가 열린다. 광주지역 청소년들은 이날 안전한 사회를 꿈꾸며 각종 공연과 전시 등을 선보인다.

15일부터 16일에는 광주에서 출발해 경기도 안산까지 가는 ‘다함께 안산까지’ 행사도 개최된다. 참가자들은 15일 광주에서 출발해 안산에서 전야제에 참석한 뒤 16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4·16생명안전공원과 단원고의 ‘기억교실’을 방문하고 광주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광주에서는 시민상주모임의 주관으로 14일과 16일까지 청소년촛불모임을 열어 시민들과 세월호 참사 분위기를 나눈다.

14일에는 오후 4시 16분 광주시 북구청 앞 광장에서 일곡, 용봉, 양산, 문흥동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촛불마을 행사가 열린다.

15일에는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하는 ‘청소년 기억문화제’가 열린다. 광주지역 청소년들은 이날 안전한 사회를 꿈꾸며 각종 공연과 전시 등을 선보인다.

15일부터 16일에는 광주에서 출발해 경기도 안산까지 가는 ‘다함께 안산까지’ 행사도 개최된다. 참가자들은 15일 광주에서 출발해 안산에서 전야제에 참석한 뒤 16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4·16생명안전공원과 단원고의 ‘기억교실’을 방문하고 광주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광주에서는 시민상주모임의 주관으로 14일과 16일까지 청소년촛불모임을 열어 시민들과 세월호 참사 분위기를 나눈다.

14일에는 오후 4시 16분 광주시 북구청 앞 광장에서 일곡, 용봉, 양산, 문흥동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촛불마을 행사가 열린다.

15일에는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하는 ‘청소년 기억문화제’가 열린다. 광주지역 청소년들은 이날 안전한 사회를 꿈꾸며 각종 공연과 전시 등을 선보인다.

15일부터 16일에는 광주에서 출발해 경기도 안산까지 가는 ‘다함께 안산까지’ 행사도 개최된다. 참가자들은 15일 광주에서 출발해 안산에서 전야제에 참석한 뒤 16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4·16생명안전공원과 단원고의 ‘기억교실’을 방문하고 광주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광주 AI영재고 부지 곧 결정...첨단 3지구 등 검토

시, 2027년 3월 개교 예정

광주시가 인공지능(AI) 영재고 설립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7일 기자단과 차담회에서 “AI 영재고 후보지를 결정해야 해 입지로 여러 군데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그동안 정부 건의 단계에서 학년별 정원 50명 규모로 광주과학기술원(GIST) 내부 또는

인접한 첨단 3지구에 영재고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GIST 내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으며 운영 효율성, 접근성 등을 고려해 다른 지구도 후보군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와 상황이 비슷한 충북도는 최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AI 바이오 영재고 부지로

KAIST 오송 캠퍼스가 있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을 결정했다.

광주시는 조만간 후보지를 압축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부지를 결정하고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할 예정이다.

GIST에서 발주해 진행 중인 설립 용역을 통해 정원, 사업비 등 규모가 결정되면 내년 설계를 거쳐 2025년 공사에 들어가 2027년 3월 개교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GIST, AI 사관학교 등에서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는 만큼 영재고까지 설립되면 AI 인재 양성 사다리가 완성될 것”이라며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서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가 부족해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지속해서 토로해왔다.

학생(3학년)과 졸업생에게 채용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최근 전남도교육청의 중학교 스포츠 강사 선발 시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만 강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학력 차별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학교 현장에서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가 부족해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지속해서 토로해왔다.

학생(3학년)과 졸업생에게 채용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최근 전남도교육청의 중학교 스포츠 강사 선발 시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만 강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학력 차별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학교 현장에서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가 부족해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지속해서 토로해왔다.

학생(3학년)과 졸업생에게 채용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최근 전남도교육청의 중학교 스포츠 강사 선발 시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만 강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학력 차별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학교 현장에서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가 부족해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지속해서 토로해왔다.

학생(3학년)과 졸업생에게 채용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최근 전남도교육청의 중학교 스포츠 강사 선발 시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만 강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학력 차별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학교 현장에서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가 부족해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지속해서 토로해왔다.

학생(3학년)과 졸업생에게 채용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최근 전남도교육청의 중학교 스포츠 강사 선발 시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만 강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학력 차별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학교 현장에서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가 부족해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지속해서 토로해왔다.

학생(3학년)과 졸업생에게 채용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최근 전남도교육청의 중학교 스포츠 강사 선발 시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만 강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학력 차별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학교 현장에서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가 부족해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지속해서 토로해왔다.

학생(3학년)과 졸업생에게 채용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최근 전남도교육청의 중학교 스포츠 강사 선발 시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만 강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학력 차별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학교 현장에서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가 부족해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지속해서 토로해왔다.

화순 백아산 6·25 전사자 유해발굴 재개

4월 14일까지

6·25 전쟁 전·후 국군과 무장공비들이 격전을 벌였던 화순군 백아산 일대에서 유해발굴이 재개됐다.

육군 제31보병사단은 유해발굴의 시작을 알리고 작업시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6·25 전사자 유해발굴 개도식’을 27일 현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14일까지 진행될 이번 유해발굴은 지난해 국군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 한 구가 발굴된 후 추가 발굴이 유력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에는 총 3600㎡를 발굴해 탄피 등 군용품과 함께 유해 한 구를 발굴했다. 올해는 인근 2000㎡ 면적에 대해 발굴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백아산은 6·25전쟁 당시 인민군들이 진지를 구축해 국군과 격전을 벌였던 곳으로, 미처 수습하

지 못한 호국영웅들의 유해가 묻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쟁 당시 조선노동당 전남도당 본부와 빨치산 전남 총사령부가 위치한 곳으로 지속적인 교전으로 국군·경찰을 비롯한 민간인 수백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해발굴팀장을 맡은 총의대대 이호석 중위는 “조국을 위해 장렬하게 산화하신 선배 전우들의 호국정신이 필요한 때”라며 “안전하고 성과 있는 유해발굴 작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